

고품질! 정통 시사 주간신문

일요주간

383호

2013년 1월 22일

www.ilyoweekly.co.kr

이슈 신세계 이마트 직원 사찰 전말

이마트, 무노조 위해 법도 윤리도 저버려

장이나 의원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기본권과 인권 유린의 연주소 업종"



칼 빼든 감사원, MB정부 정조준 왜?

4대강사업에 대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4대강 그림자 차정부 덮치나

환경단체 "보 철거하라" vs 정부 "안전하다" ... 4대강 설계 건설사, 감사원 발표에 '전전긍긍'

직격인터뷰



김태윤 감독

"삼성 백혈병,
공감하고 싶으면
이야기 영화로
만들 뿐"

현장스케치 | 집회광장으로 변한 인수위 앞

조선시대 신문고 부활했나?

큰 정책 내세우기보다
소외계층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역대 연봉자에서 가난한
골목상권 사장이 된 강도현 분투기

나는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망했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좀비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사용자 위험에 대한 경각심 갖고 대비하는 자세 필요해

박근혜 당선 한 달...년제 신적

신(新)·구(舊) 정권 인수인계 곳곳 '암초'

MB 설 특사·이동통신 논란... 4대강 부실
수면위로 떠올라...연 정부와 '선긋기'

이동통신 현재상황 후보자 의혹

